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파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했다" 신고…광주동부경찰 수사 착수

변호·보호해야 할 법률대리인이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물의'

검찰 지정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변호할 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보호·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는 한편, 해당 변호사에 대한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변호사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를 적용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가 검찰이 지정한 국선변호사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서민, 저소득층 등일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력 관련 내용을 털어놓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에게 다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접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통상 성폭력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국선 변호사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해당 피해자도 2차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됐는데, 해당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셈이다. 해바라기센터 등은 피해자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폭력 가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교육부 면직 교사 복직 검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기쁩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내린 단체협약 무효,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 '4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면직 교사들의 복직 절차와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 교육계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는 광주·전남에만 9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전교조 운동에 앞장서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나란히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폭력적 행정으로 동참해 사법농단을 부렸던 사법부가 이제야 이성을 되찾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화재 23일만에…불길 잡았다

곡성 알루미늄 분말처리 공장 물로도 진압 안돼
단열용 인공골재·모래 살포 공기 차단 질식 소화

곡성 알루미늄 분말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불〈광주일보 8월 12일 6면〉이 23일 만에 진화됐다.

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곡성군 석곡면 농공산업단지 내 알루미늄 분말공장에서 대기중 수증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공장 화재는 200t의 알루미늄 등 금속 분말이 타면서 23일간 이어졌다.

금속 화재는 물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 물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으며 폭발 위험성도 매우 높다.

소방당국은 이 때문에 단열용 인공 골재인 팽창질석과 마른 모래를 살포해 방어선을 만들고 공기를 차단하는 등 질식 소화를 유도했다.

또 매일 유해가스·화염 온도를 측정하면서 자연연소가 촉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속 성분이 낮아진 시기를 찾아내 제거 소화로 작전을 바꾸면서 애초 예상 기간(90일)보다 단축했다.

이 불로 알루미늄 분말 200 t 이 불에 탔다. 남은 분말 650 t 은 공장 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전남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실내에서 발생한데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화재 현장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면서 알루미늄 분말이 불에 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술판 물의' 광산경찰서장 직위해제

광주광산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불필요한 모임·행사 자제 권고에도, 일행들과 모임을 갖고 부적절한 행태로 물의를 빚은 A 광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달 2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술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와 함께 피의자로 전환, 입건됐다.

광산경찰서장은 광주청 수사과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조치와 별도로 수사 내용·결과에 따라 A 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일 직권남용 혐의로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박 군수는 지난 2018년 신안군청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악=김민준 기자 ju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 매 물 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